

482-110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1 (전화) 070-7797-2583

[news.pcis@daum.net](mailto:news.pcis@daum.net)

대표 손영준

<http://cafe.daum.net/pcis>

|     |  |
|-----|--|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정보화 담당기자                        |
| 발신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
| 문의  | 손영준 T. 010-8677-9515                       |
| 작성일 | 2015. 02. 05(목)                            |
| 제목  | [보도자료] 미래부 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제도 시행 실태조사(총 4페이지) |

## 미래부 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제도 시행 1년

- 실효성 없는 미래부 적정사업기간 제도, 탁상행정의 결과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2월 미래부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의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일년이 지난 현재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가 현실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전인 2013년 계약정보와 2014년도 계약정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도표>와 같이 미미한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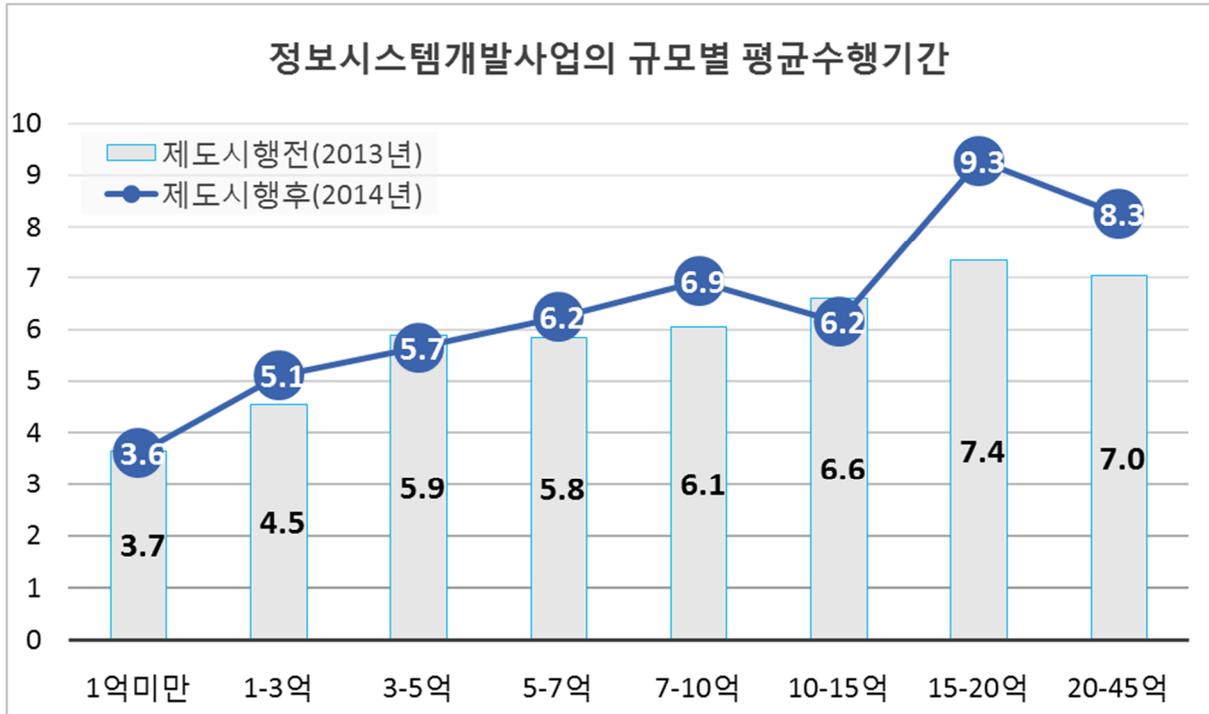
▷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토록 되어있어 이는 연간 수천 건의 다양한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음.

▷ 또한 위원회를 통하여 산정된 내용을 제안요청에 공표하지 않고 단지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이라는 문장으로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폐쇄적인 제도운영.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행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도는 SW 개발사업의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이며, 폐쇄적인 위원회 만능주의에 의한 발주자(발주기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바위도 깬다

## 안전한 정보화 사회 위하여 노력하는 새내기 시민단체

관)의 책임회피용 제도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기적으로 “사업유형별, 사업규모별 적정사업기간 가이드”의 제시를 통하여 현실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창조경제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도표. 정보시스템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산정”제도 전후의 비교 도표>

### ■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길어야 8개월인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현상이다.

▷ 사업수행기간의 단축은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행기간의 단축은 엔지니어의 근무 여건의 열악화(월화수목금금금), SW공학 적용의 실종(생각할 시간 없이 하루 몇 본 작성, SW가 벽돌인가?)으로 결국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또한 고도화 명분으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 이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로 고착화시키며, 창의와 도전 정신이 싹틀 수 없는 황폐화된 소프트웨어 생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 끝.

## - 실태조사 분석 -

### 1 조사 내역

가) 대상기간 : 2013년도 ~ 2014년도

나) 조사대상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

다) 현황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의 "특정물품분류 구매공급실적\_내역"

- 2 조달청 나라장터의 특정물품분류 구매공급실적\_내역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의 2,745건 중 개발기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발주한 순수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기간 산정제도 시행전인 2013년도사업 467건과 시행 후인 2014년도 사업 477건을 사업규모별로 평균 사업기간을 조사하였습니다.

| 구분   | 2013 년     | 2014 년     | 총합계        |
|--|------------|------------|------------|
| 행정기관   | 1,004      | 856        | 1,860      |
| 공공기관   | 451        | 434        | 885        |
| 총합계  | 1,455      | 1,290      | 2,745      |
| *) 패키지도입 및 감리, 유지보수, IT인프라 도입 등 복합 발주된 자료 제외 |            |            |            |
| 순수 개발사업(행정기관)                                | <b>467</b> | <b>477</b> | <b>944</b> |

도표 1. 특정물품분류 구매공급실적\_내역 자료 현황

- 3 제도 시행 전(2013년도)과 시행 후인(2014년도)의 사업 규모별 평균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15억 ~20억미만의 사업규모는 1.9개월 길어졌으며, 20억~45억미만의 사업규모에선 1.3개월 길어진 것을 보이고 있으나 타 규모에서는 제도 시행전과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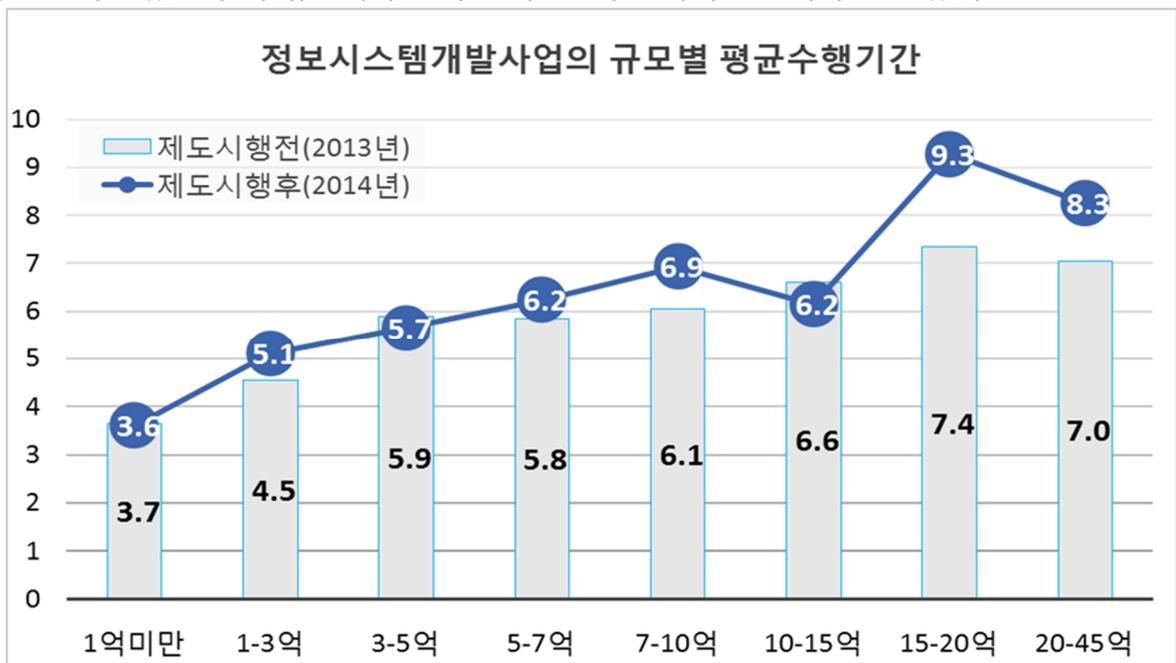


도표 2. 정보시스템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산정"제도 전후의 비교 도표

## 안전한 정보화 사회 위하여 노력하는 새내기 시민단체

- 4 다음은 사업규모별 사업기간의 평균값, 평균의 차이 및 검정통계량을 나타내는 표이다. 간략하게 제도 시행 전후의 사업규모별 사업기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15억-20억 규모사업에서 1.93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두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T.TEST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억-3억 규모사업의 검증통계량(0.0032)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사업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두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기간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 사업규모   | 시행전(2013년) | 시행후(2014년) | 평균의 차이 | T.TEST 통계량    |
|--------|------------|------------|--------|---------------|
| 1억미만   | 3.7        | 3.6        | -0.05  | 0.7564        |
| 1-3억   | 4.5        | 5.1        | 0.57   | <b>0.0032</b> |
| 3-5억   | 5.9        | 5.7        | -0.23  | 0.5070        |
| 5-7억   | 5.8        | 6.2        | 0.40   | 0.4695        |
| 7-10억  | 6.1        | 6.9        | 0.89   | 0.1160        |
| 10-15억 | 6.6        | 6.2        | -0.47  | 0.4533        |
| 15-20억 | 7.4        | 9.3        | 1.93   | 0.1235        |
| 20-45억 | 7.0        | 8.3        | 1.21   | 0.2061        |

표 1. "적정사업기간산정"제도 전후의 사업기간 평균값 차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